

패권경쟁과 해군력의 역할*

김 경 식**

I. 서론

II. 패권경쟁에서 해군력의 역할

III.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해군력의 역할

IV. 한반도에 주는 교훈과 함의

* 본 논문은 김경식,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해군력의 역할 분석,”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2017)에서 중요부분을 발췌·재편·요약·정리한 것임.

** 전 해군대학 총장.

I. 서론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미·중간 패권경쟁에 관한 논의는 국제정치의 핵심담론이 되고 있다. 특히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미·중간의 상대적 권력이 급변함에 따라 미·중간 동아시아 패권경쟁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양국이 해군력을 공세적으로 운용하면서 이미 해양에서는 패권경쟁이 시작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¹⁾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대비를 위해 근대 이후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해군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규명하고 향후 한국 해군력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세계정치에서 해군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특히 패권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또는 패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해군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는 오랜 옛날부터 진행되어 왔다.

역사학의 아버지라 일컫는 헤로도투스(Herodotus)는 그의 역작 『역사』의 139장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불쾌히 여기겠지만, 진실이라고 믿기에 유보할 수 없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아테네인들이 바다에서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Xerxes)에게 맞서지 않았다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헬라(Hellas)가 페르시아에게 예속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페르시아 왕이 제해권을 장악하였다면 아테네로 가는 지상의 협곡을 차단한 방벽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테네인들이야말로 헬라의 구원자라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였다.²⁾ 페르시아와 헬라가 충돌한 패권전쟁에서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cles)가 지휘한 연합함대가 살라미스 해전(The Battle of Salamis, B.C.480)에서 승리하여 페르시아 대군을 격퇴시킨 역사적 사실을 두고 한 말이었다. 해군력이 헬라제국의 서양패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제국의 동양패권을 무너뜨린 것이다.

중세 이후 인류가 세계화에³⁾ 나선 이래 세계패권경쟁에서 승리한 국가나

1) 미·중간 해양패권경쟁에 대해서는 Toshi Yoshihara and James R. Homes, *Red Star over the Pacific: China's Rise and the Challenge to U.S. Maritime Strategy* (Naval Institute Press, 2010); 차도희, 『동아시아 미·중 해양패권경쟁탈전』 (성남: 북코리아, 2012); 이재형, 『중국과 미국의 해양경쟁』 (서울: 황금알, 2014) 참조.

2) 천병희 옮김, Herodotus 지음, 『역사』 (고양: 도서출판 숲, 2009), pp.700-787.

3) 중세 이후 세계화란 제1세대 대양개척시대, 제2세대 산업혁명시대, 제3세대 정보화 혁명시대를 의미함.

패권을 계승한 국가는 모두 해양강국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대륙강국은 번번이 실패했는데, 프랑스, 독일, 러시아, 소련 등이 바로 그러하다.⁴⁾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중국대륙을 지배하는 국가가 지역패권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서구의 해양국가가 동아시아에 몰려오면서 패권 경쟁양상이 달라졌다. 세계 최강대국이던 중국은 해군력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구의 침탈대상으로 전락하였고, 러시아도 주로 지상력에 의존하여 패권경쟁에 나섬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비해 도서내륙국가에서 도서해양국가로서 국가개조에 성공한 일본은 해군력을 바탕으로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대륙국가에서 대양국가로 탈바꿈한 미국도, 도서해양국가 일본을 물리치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인수하였다. 최근에는 대륙국가 중국이 해양화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제2위의 강대국 지위에 올랐다.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도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 추세와 함께 해양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⁶⁾

역사적으로 ‘바다에서의 힘’은 패권경쟁과 세계지배를 향한 분명한 길이었기 때문에, 세계 강대국들은 바다를 통제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해권은 세계에 대한 압도적 영향력을 의미하였으며, 국가의 힘과 번영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⁷⁾ 특히 해군은 바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pervasiveness), 전력운영의 다양한 융통성(flexibility), 힘과 의지를 표출하는 가시성(visibility)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으로 대외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으며,⁸⁾ 다른 군과는 달리 패권전쟁에서의 군사적, 전략적 승리뿐만 아니라平時 또는 위기 시에도 국제체제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해군력은 패권경쟁이나 패권유지의 필수적 조건이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해군력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

4) 박건영 외 편역, 『국제관계론 강의 I(International Relations I)』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8), pp.255-257.

6) 대표적으로 틸(Geoffrey Till) 교수는 세계화를 국경 없는 세계, 역동적인 체제, 자유로운 통상체제로 특징을 지으면서 본질적으로 세계화는 해양과 관련되어 있고 세계의 해군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배형수 역, Geoffrey Till 저, 『21세기 해양력』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pp.6-8.

7) 배형수(2011), pp.65-66.

8) Hedley Bull, "Sea Power and Political Influence," Jonadhan Alford ed., *Seapower and Influence* (Hampshire, England: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80) pp.3-11.

하였는가를 분석하고, 미래에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전망하여, 다가오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패권경쟁에서 해군력의 역할

1. 해군력 개념

가. 해군력 정의

해군력은 그 공간적 활동영역과 기능적 효과영역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좁은 의미에서는 해양공간에서 운용되는 해군에 편제된 전투력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해양에서 지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다른 영역에 대한 접근 및 투사능력을 포함하며, 다른 전장영역에서 해양에 대한 접근과 투사능력도 모두 포함한다. 오늘날 세계안보 개념의 변화와 현대적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군력의 전투공간과 전장영역이 더욱 확대되었고 지상, 공중, 해상, 우주, 사이버 등의 영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능력이나 이런 접근을 거부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기능영역과 군간의 경계를 초월한 시너지 효과중심의 해상합동작전능력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처럼 해군력은 해양체계뿐 아니라 지구공공재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해군력은 국가적 차원의 국력투사(power projection)능력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군력이 지니고 있는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해군력은 그 개념 자체보다는 지상력이나 공군력과 차별화되는 상대적 개념에서 유용성이 더 많다. 즉 해군력은 활동공간면에서 공군력과 지상력에 비하면 거의 무제한적이며, 기능면에서도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이익과 안보를 증진시키는 국가전략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 해군력의 특성

인류가 고대도시국가-근대민족국가-세계화국가 체제로 발전해오면서 바다는 국가간 정보와 사람과 상품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거래되는 공동시장 역

할을 하였고, 이 바다를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해왔다. 따라서 세계패권전쟁은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한 해군의 전쟁이었다. 역사적으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베니스, 오만 등과 같이 제한된 국토와 적은 인구, 빈약한 자원, 특히 취약한 육군을 가진 국가가 어떻게 성공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해양력뿐이다.⁹⁾ 더구나 세계화된 지구촌 세계에서 해양은 더 이상 장벽으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해군력은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패권경쟁이나 패권유지의 필수적 조건이 되었다.¹⁰⁾ 첫째, 바다의 광역성(great sphere)이다. 지구 면적의 29%는 육지이고 71%가 바다이다.¹¹⁾ 육지는 군사활동을 통제하거나 차단하는 200개에 가까운 국가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바다에는 국가가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군의 활동범위는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세계적 문제에 대한 민첩한 접근(global accessibility)이다. 바다는 세계적인 모든 정보와 상품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자 확산되는 곳이다. 이러한 바다에 해군은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다. 육·공군의 세계문제에 대한 접근은 여러 가지 마찰과 장애를 안고 있지만, 군함은 공해상 통항의 자유를 누리며, 통합된 단일전투체계로서 즉시적 출동이 가능하다.

셋째, 권력을 전달하는 매개체(power medium)로서 중개성이다. 정치에서 권력이란 경제에서의 화폐와 같다. 화폐가 재화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처럼 해군은 한 국가의 권력의 지위를 상징하고, 화폐가 신뢰성 있는 유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처럼 해군도 국가 권력과 의사를 전달하는 신뢰성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함정은 많은 정보용량, 위협적 무장, 높은 가시성 등 뛰어난 상징성을 보여 줌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다.¹²⁾ 특히 권력의 전달자로서 우방국을 지원하고 잠재적 적대국을 강압하거나 억제시킨다.

넷째, 다재다능한 임무(mission versatility) 수행능력이다. 해군은 평시에서부터 전쟁에 이르는 모든 분쟁 즉, 저강도에서 고강도에 이르는 다양한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전투 및 비전투, 국내에서 세계에 이르는

9) 배형수(2011), pp.65-66.

10) Bernard Brodie, *A Guide to naval Strateg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4), pp.47-64; 양정승,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해군력의 정치적 사용에 대한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2009), pp.28-36.

11) 이주하 옮김, 무라타 료헤이 지음, 『바다가 일본의 미래다』 (서울: 도서출판 청어, 1999), p.25.

12) George Modelski and William R. Thompson, *Sea Power in Global Politics 1494-199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pp.13-14.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섯째, 전술적 융통성(tactical flexibility)이다. 해군은 다양한 임무와 상황에 맞게 맞춤형 편성이 가능하며, 육·공군과의 합동작전과 외국과의 연합작전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여섯째, 지상에 대한 영향력 투사능력(projection ability)이다. 세계인구의 대부분이 해안가에 살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의 약 75%에 이르는 150여 개 국가가 바다에 접해 있고, 그 국가의 중요 산업시설과 도시, 그리고 인구가 산업화 속도만큼 빠르게 해안가로 이동하고 있다. 이처럼 각 국가의 중심이 해안가로 이동하는 반면, 해군의 항공기, 장거리 정밀 유도탄 등 지상에 대한 공격능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세계 대부분의 중심이 해군의 무력투사권(force projection) 안에 들어오고 있다.

일곱째, 부대 통제성(forces controllability)이다. 해군함대는 상황에 따라 참가범위와 강도를 조정하고 공격과 후퇴를 쉽게 통제할 수 있다. 여덟째, 전·평시 안보 및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체제 유지능력(coalition ability)이다. 해군은 다른 대륙에 있는 국가와도 동맹을 맺거나 제휴관계를 유지하게 해 주는 반면 적대국과 그 동맹국들의 연결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홉째, 해양 네트워크체제 구축능력(networking capability)이다. 해군은 해상교통로 보호, 해양질서 및 합의유지 등 지구 공공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테러, 해상재난,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초국가적 위협으로부터 세계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지구적 해양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말미암아 해군력은 세계정치의 필수조건이 되어 왔었다.

모델스키(George Modelski)는 해군력은 세계패권을 쟁취하는 능력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패권계승을 놓고 다투는 세계전쟁에서 승리의 도구였다고 하면서, 세계 최강의 해군국가들은 그 동맹국들과 함께 바다를 지배하고, 도전자의 공격능력을 제한시키거나 격퇴시켰다. 패권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해군력은 중요하여 새로운 패권질서를 구축하고 세계교류의 통행로를 규정하고 세계패권국과 그 동맹 및 종속국에 대한 도전세력의 잠재적 공격을 억지해 주는 중요한 군사도구로 사용되었다. 해군력은 세계체제의 관리·유지의 핵심수단이자 세계지도력을 발휘하는 토대로서 전쟁 시나 평화 시를 막론하고 세계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이었던 까닭에 해군력의 변화는 세계패권의 성쇠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¹³⁾고 강조하였다.

2. 패권경쟁에서 해군력의 역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강조한 마한(Alfred Thayer Mahan)은 바다를 거대한 공공재(a wide common)라고 하였다. 모델스키는 이 공공재에 대한 접근능력(global reach)을 해군력(sea power)으로 규정하면서 이것이 세계지도력(global leadership)의 근간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미국도 지구적 공공재에 대한 지배능력(command of the commons)을 패권경쟁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해군력은 지구적 공공재와 세계문제에 대한 개입능력을 발휘하는 데 적합한 특성을 말미암아 오래 전부터 전평시를 막론하고 장기간 동안 전략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패권경쟁의 핵심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첫째, 해군력은 국가내부의 국력을 증진시키는 원동력으로서 강대국으로 성장할 기반을 조성해 준다. 둘째, 해군력은 세계패권 또는 지역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강대국 조건을 갖추게 해준다. 셋째, 해군력은 패권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보장해 준다. 넷째, 해군력은 패권체제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군사적 수단을 제공해 준다.

가. 국가의 국력증진 수단으로서 해군력

마한은 일국의 해양력 건설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리적 위치, 자연적 조건, 영토의 크기, 인구, 국민성, 정부의 성격 등을 꼽았다.¹⁴⁾ 이처럼 해양력이란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의미한다. 특히 해군력은 국가재정, 산업력,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과 국민들의 성원이 있을 때에야 건설될 수 있었다. 러시아의 피터 대제, 독일의 빌헬름 2세, 일본의 명치 왕,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의 해군력 건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해군력은 국가역량을 모아 건설되는 것이니 만큼, 이에 비례하여 해군력 건설 역시 국가의 권력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 먼저 해군력 건설은 국가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촉진시켜 주었다. 군함은 첨단기술의 총화로서 기술발전을 선

13) 박건영 외(1998), pp.233-234.

14) 김주식 옮김, Alfred Thayer Mahan 지음,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 책세상, 1997), pp.76-143.

도하며, 각 분야별 산업기반과 기술 인력의 확충을 촉진시킨다. 아시아에서도 청국은 북양함대, 일본은 연합함대 등을 건설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의 근대화화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일본은 서양의 선진문물과 기술을 수입하는 통로로 해군을 활용하였다.

현대에 들어서도 해군력은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과 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더구나 해양산업은 ‘Blue Economy’로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어서 각국은 다각적인 전략을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미국, 중국, 일본 등은 해양산업과 해양과학기술발전을 국가적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바 있으며 해양산업 시장규모는 매년 증가일로에 있다.¹⁵⁾ 향후 미래 해양산업의 중요성과 발전추세를 볼 때, 세계적 지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첨단 해양과학기술과 새로운 해양산업분야를 개척하는 선구자 역할이 필요한데 해군력은 이러한 해양산업을 촉진시키거나 지원하는 공공재로서 기여하고 있다.

둘째, 해군력 건설은 자국의 군사력을 증진시키고 군사적 역량을 강화시켜 국력증진에 기여한다. 해군은 지상에 대한 확장된 방어력을 제공하여 국가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단독 또는 합동작전 등 군대의 작전 융통성과 활동영역을 크게 확대시킨다. 셋째, 해군은 대외적 외교와 해외팽창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국가활동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국가정책결정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국력사용의 양과 질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지위를 높여준다.

넷째, 해군력 건설은 국가를 해양화로 개조시키는 데 기여한다. 해군이 없었던 도서국가 일본이 해군건설에 나선 지 20년 만에 청국의 북양함대를 격파하고 또 10년 만에 러시아 발틱함대를 격멸한 것은 해군을 올바르게 사용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이는 전통적 소군체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틸(Geoffrey Till)은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였던 소련이 붕괴된 것은 마한이 예견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육지에 종속되어 해양화되지 못함으로써 붕괴된 것이라고 하였고,¹⁶⁾ 반면에 코헨(Saul Bernard Cohen)은 오늘날 중국의 부흥은 해양국가로서 거둔 성공이며, 중국의 미래는 전통적인 대륙성과 새로운 해양성과의 조화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¹⁷⁾

15) 임진수·황기형·황진희·홍장원·엄선희·박광서, 『해양기반 신국부 창출 전략(I)』(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p.34, p.53-82, p.48.

16) 배형수(2011), p.65.

17) Saul Bernard Cohen, *Geopolitics: The Geography of International Relations*, (Maryland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9), pp.253-254.

나. 패권도전 조건으로서 해군력

지정학자 라첼(F. Ratzel)은 세계적 명성을 얻고자 하는 국가는 반드시 해양을 지배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독일 경제학자 리스트(F. Wrist)도 해양은 패권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부와 자원의 보고라고 하였다.¹⁸⁾ 코헤인(Robert O. Keohane)은 세계패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주도할 경제력과 세계경제 질서를 보호할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⁹⁾ 길핀(Robert Gilpin)도 세계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 자본, 자원 및 고가치 상품의 생산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패권을 확보해야 하고,²⁰⁾ 이런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해상통제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²¹⁾

먼저, 경제적 패권경쟁 측면에서 해군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해군은 전통적으로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국가의 상업적 이익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세계무역량의 95%가 바다를 통해 수송되고 있으며 계속 화물의 양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²²⁾ 예컨대 해상에서 철광석을 10,000km 운반하는 비용은 육상에서 100km 운송하는 비용과 같다. 이처럼 해상운송은 육상운송보다 훨씬 많은 양을 저렴하게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몇백 년이 지나더라도 해상무역의 중요성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며, 강대국들의 해군은 계속해서 세계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통한 상업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²³⁾

둘째, 해군은 세계의 주요자원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보장해 준다. 육지자원이 고갈되면서 해양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분쟁이 날로 확산되고 있고, 해양자원을 자국의 통제 안에 두기 위한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해양자원 쟁탈시대에 해군력이 없으면 해양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세계패권국이 되기 위한 자격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코헤인은 세계패권의 경제력 요소로 자원, 자본, 시장, 공공재 생산 등을 제시하면서 이중에서도 전략적 자원인 석

18) 전용 편역, 『지정학과 해양세력이론』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p.15.

19)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31-39.

20) Robert Gilpin, "The Nature of Political Economy." Art, Robert J. & Jervis, Robert, *International Politics* 8th ed. (New York: Pearson & Longman, 2007), p.271.

21) Robert Gilpin,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75), pp.45-190.

22) 임진수·황기형·황진희·홍장원·엄선희·박광서(2009), pp.101-105.

23) 이주하(2008), p.33.

유는 세계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제해야 할 요소라고 하였다.²⁴⁾

그런데 해양은 지구상 마지막 프린티어로서 무한한 자원 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지구 표면의 29%를 차지하는 육지의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지만, 71%를 차지하는 해양은 거의 무제한의 자원 보고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찾아낸 해양석유 부존량은 약 1조 6,000억 배럴로서 육지와 비슷하나 그 중 62%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해저 석유 부존량은 측정하기도 어렵다. 해저에 매장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10조 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현재 소모량을 기준으로 향후 5,00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해양 에너지 자원은 연간 150억kw로 추정되는데 무한정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이다.²⁵⁾ 또한 금속매장량으로 육상광물은 110년간 사용량인데 비해 해양은 1만년 정도의 사용량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희토류의 저장량도 막대하다.²⁶⁾

군사적 측면에서 해군은 세계패권을 경쟁할 수 있는 강대국의 조건을 갖추게 해준다. 해군력은 세계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필수조건인바, 충분한 해군력이 없으면 다른 대륙에 도달할 수 없고, 세계문제에 개입할 수도 없게 되며, 결국 세계 강대국이 될 수가 없다. 또한 자국이 속한 해양을 통제하지 못하면 지역 패권국가도 될 수도 없다. 지상만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는 지역내륙의 강대국일 뿐이다. 모델스키(George Modelski)와 톰슨(William R. Thompson)은 1494년 이후 500년 간 지구적 전투를 할 수 있는 회원국들은 세계 해군력에서 10% 이상을 차지한 국가들이었고, 지구적 전투를 통하여 세계적 지도국가로 출현한 국가는 세계 해군력에서 50% 이상을 차지하였다고 하였다.²⁷⁾ 이는 패권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계 해군력의 10%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며, 세계 지도국가는 압도적 해군력을 독점적으로 가진 국가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그래서 패권경쟁국들은 패권전쟁에 앞서 해군경쟁부터 벌여야 했다. 지배자는 도전자를 억제하겠다는 명목으로 도전자는 지배자의 해양위협을 거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치열한 해군경쟁을 벌였고 해군력 균형을 위해 동맹을 구하려 나서기도 하였다. 청일전쟁 후 러·일간 해군경쟁, 제2차 세계대전 직전

24) Robert O. Keohane(1984), pp.31-39.

25) Robert O. Keohane(1984), pp.25-27.

26) 이주하(2008), pp.38-50.

27) George Modelski and William R. Thompson(1988), pp.97-132.

영국과 독일 간의 해군경쟁, 워싱턴 조약해체 후 미·일간의 해군경쟁 등 패권 전쟁의 길목에는 항상 해군 준비경쟁이 있어 왔다.

또한 해군력은 패권도전에 필요한 동맹을 획득하고 결성하는 데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하고 연합전투의 인프라를 제공한다. 세계 패권전쟁은 여러 나라가 동참하는 동맹간의 전쟁이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델리안 동맹과 스파르타의 펠로포네소스 동맹은 해군력에서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한 동맹이었다. 중세 이후 500년간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은 돌아가면서 세계패권에 도전하는 수단으로 해양동맹을 이용했다. 20세기 초 영일동맹은 대륙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지구촌 반대편에 위치한 해양국가 간의 동맹이었고, 러시아도 근래 세 차례 글로벌 전쟁에서 대양연합에 가담했다.²⁸⁾ 이처럼 해군력은 패권 경쟁에 필수적인 동맹을 획득하고 동맹간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콜벳(Sir Julian S. Corbett)은 “취약한 지상군을 보유한 작은 국가인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해군력뿐이다.”라고 하였고,²⁹⁾ 제2차 세계대전의 명장 몽고메리 원수(Field Marshall Sir Bernard Montgomery)는 “인류가 바다를 사용한 이래 역사적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지상전략에 간혀 있는 국가는 결국 패배하였다.”고 하였다.³⁰⁾ 지상력만으로는 세계국가가 될 수 없다. 지구적 도달능력인 해군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세계패권에 경쟁할 수 있는 세계국가로 도전할 자격을 갖게 됨을 역설해 주고 있다.

다. 패권전쟁에서 해군력 역할

칼웰(C.E. Callwell)은 해양력은 군사작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비록 해양력의 영향이 간접적일 수 있지만 결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해양력이 지상전역에 주는 효과는 전략적 맥락에서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전의 전략적 효과가 지상에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지상에서 육군이 행진하는 것처럼 눈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수평선

28) George Modelski and William R. Thompson(1988), p.283.

29) Sir Julian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London: Longmans, Green 2nded, 1911), p.49; 배형수(2011), pp.66.

30) Sir Peter Gretton, *Maritime Strategy: A Study of Defense Problems* (New York: Praeger, 1965), p.43.

너머를 볼 수 없는 것처럼 해군의 역할을 잊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전쟁국면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세계 패권전쟁은 한 나라만의 전쟁도 아니고, 군사력만 가지고 하는 전쟁도 아니다. 하루 동안 단 1회의 결투로 결정되는 전쟁은 더욱 아니다.³¹⁾ 패권전쟁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며 전략적으로 수행된다. 모든 국력을 동원한 장기적인 권력경쟁과 수년 간에 걸친 해·육상의 여러 전투가 누적된 결과이다. 특히 패권전쟁을 수행하는데 해군력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해군력은 패권전쟁에서 승리할 여건을 사전에 조성해 준다. 마한은 해군력이 전술보다는 전략적인 부분에 속한다고 하였다. 해군력은 평시에 기지·동맹의 획득·유지 및 광범위한 군사·외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전략적 전승여건을 조성한다.³²⁾ 해군은 적보다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여 적의 접근을 거부하며, 때로는 적을 위협에 노출시켜 도발을 억제하기도 하고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때까지 전쟁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해군의 평시활동의 전략적 효과는 전시에 더 오래 지속되는 전략적 가치를 발휘한다.

둘째, 해군력은 동맹간 협조된 작전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상호지원을 제공해주고 적대세력들의 그러한 역할을 차단시켜 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미동맹은 영국과 미국 간의 북대서양 생명선을 보호했고, 무르만스크를 통해 소련에 대한 재보급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반면에 독·일간 동맹은 연합국의 해양동맹에 의해 차단되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동맹국 해군은 상호 병력·군수지원 등 재보급, 전시 자원과 생필품 확보를 위한 무역로 개방, 지역과 상황에 맞는 임무와 역할의 분담, 협조된 전역관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동맹국에 대한 지상전 수행능력을 제공하여 연합전선을 구축해 준다. 향후 세계화 추세를 고려할 때, 해군은 동맹들과의 필수적·효과적 연결고리를 공고히 하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³³⁾

셋째, 해군력은 전쟁을 결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이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계속된 유럽의 해군경쟁은 제1차 세계대전의 근인 중 하나였으며, 전쟁이 끝나자마자 세계는 전쟁재발방지를 위해 워싱턴 해군조약체제를 구축하였다. 그것은 해군력이 전쟁의 중요수단이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

31) 이윤희·권복인 공역, Von Mantain 지음, 『해양전략』 (서울: 연경문화사, 1979), pp.332-341.

32)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890), p.22.

33) George Modelski, William R. Thompson(1988), pp.11-12.

유에서였다. 또한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의 하와이를 기습공격을 결심한 데에는 모든 여건이 일본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해군력만은 일본이 우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넷째, 해군은 패권전쟁에서 제해권을 확보하여 승리를 쟁취하게 해준다. 제해권은 자유로운 바다의 이용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우군의 지상에 대한 중심 깊은 방어를 제공하는 한편 적 핵심이 우군의 직접적인 공격에 노출되도록 만든다. 일찍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제해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첫 전투는 334척의 함정으로 그리스 헬레스폰트를 건너 그래니쿠스 강에서 페르시아 군과 벌인 전투였다. 이집트 원정에 앞서 그는 “우리는 마키도니아, 피니키아, 키프러스 등에서 함정을 더 동원하여 제해권을 확보해야만 이집트 원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³⁴⁾ 제1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 해군은 제해권을 획득하여 북해의 독일해군함대를 봉쇄시켰고, 독일함대는 제해권을 확보하지 못해 비결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침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독일은 제해권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영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자국의 해안을 방어하는 데 전투력을 집중해야만 했다. 태평양전쟁에서도 일본이 초기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미국이 해군력을 복원하여 주요전투에서의 승리와 꾸준한 소모전을 통해 제해권을 탈환하고 일본 본토를 초토화시킬 수 있었다.

다섯째, 해군은 지상에 대한 무력투사로 전세를 결정짓는다. 1805년 영국은 트라팔가(Trafalgar)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나폴레옹의 영국침략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었으며, 프랑스를 대륙과 해양 양면에서 압박할 수 있었다.³⁵⁾ 콜벳은 영국 원정함대가 적을 혼란시키는 효과를 거두어 대륙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는데, 당시 영국은 다운스(Downs)에 3만 명을 상륙시켜 프랑스 육군 30만 명을 고착시킴으로써 프랑스 육군을 2급 수준의 세력으로 격하시켰다.³⁶⁾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공격은 독일제국을 패퇴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오늘날에도 장거리 정밀타격무기와 항공기, 잠수함, 함정 등 플랫폼의 다양한 발전에 힘입어 무력투사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구소련의 고르시코프(Sergei G. Gorshkov) 제독

34) Clark G. Reynolds, *Command of Sea: The History and Strategy of Maritime Empires* (Malaar, Florida: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74), p.25, pp.43-45.

35) J. Holland Rose, *Man and Sea: Stage Maritime and Human Progress* (Cambridge: W. Heffer and Sons, 1935), p.219.

36) 배형수(2011), pp.366-367.

은 전략 핵잠수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상에 대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의 혁신은 영토점령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전쟁의 방향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하였다.³⁷⁾ 해군전투가 무력투사기능으로 작전적·전술적 수준에서도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결정적인 영향을, 전략적 수준에서도 전쟁결과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해임에 따라 학자들은 해군의 위계를 무력투사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섯째, 해군은 적의 전쟁지속능력을 파괴하고, 우방국의 전쟁수행능력과 전시경제유지에 기여하여 승리를 도모한다. 해군은 우방국에 대한 해상교통과 무역을 보호하고 적대국의 통상과 교통을 차단한다. 해군의 봉쇄는 적국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전쟁수행능력과 전쟁수행의지를 약화시켜 적에게 항복을 강요한다. 전통적으로 해군봉쇄는 강대국간 전쟁에서 유력한 전략으로 자주 이용되어 왔고, 모든 지구적 전쟁은 봉쇄전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나폴레옹전쟁 이후 강대국간 전쟁에서도 봉쇄는 총 8회 있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국의 일본에 대한 해상봉쇄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결정적 지상전투가 일어나기 전 적을 항복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다.³⁸⁾ 제2차 세계대전시 연합국과 중립국 선박은 총 4,770척, 21,140,000톤의 피해를 보았다. 미국은 1942년 8월부터 일본에 대한 통상파괴전을 실시했는데, 일본 상선 2,346척 8,600,000톤을 침몰시켰다. 영국과 네덜란드 해군도 일본 상선 100,000톤을 격침시켰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더 이상 공격할 일본 상선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³⁹⁾ 일본은 원폭이 없었다 할지라도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라. 패권체제 유지에서 해군력의 역할

해군은 영토를 정복하고 지배하기보다는 체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더 적합한 조직으로서 해군력은 정보성·접근성·효율성·기동성을 바탕으로 현시(presence)·여건조성(picture building)·강압(coercion)·연합구축(coalition building) 능력과 같은 세계체제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능력과 자원을 제공하며, 패권체제와 질서유지 면에서 다른 군이 할 수 없는 특출한 유용성을

37) Sergei G. Gorshkov, *The Sea power of State* (Oxford: Pergamon Press, 1979), pp.189-212.

38)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1), pp.90-92.

39) 이정수, 『제2차 세계대전 해전사』 (서울: 남영문화사, 1981), pp.191-210.

제공해 준다. 해군은 세계체제의 공공재를 공급하고 이를 실행시키며,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체제의 상태를 감시·감독한다. 그리고, 세계적 규칙을 위반한 자를 징벌하고, 패권에 대한 도전자를 억제시키며, 체제에 대한 침략자를 격퇴시킨다. 특히 해군력은 세계패권체제를 유지하는 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해군력은 해양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패권체제의 통합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보호해 준다. 지역패권체제는 대륙의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세계패권체제는 해양의 평화를 목표로 한다. 세계체제는 절대적으로 해양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 대륙제국으로 알려진 마케도니아도 마찬가지였다.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는 그리스-이집트-페르시아-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주요 점령지마다 해군기지와 항구를 개척하여 이 거대한 제국을 지배할 해양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그는 주요거점에 해군기지와 무역항을 건설했으며, 스웨즈 운하를 재개통시켜 홍해-아라비아해를 통한 이집트-인도간 무역항로를 개척하였다. 그 결과 지중해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제국의 해양 네트워크 체제를 완성하여 알렉산드리아 평화시대(Pax-Alexandria)를 연 것이다.⁴⁰⁾

대륙 지상주의자인 미어샤이머(J. Mearsheimer)가 역사상 유일한 세계 패권국이라고 지칭하였던 로마제국 또한 강력한 해양제국체제를 통해 로마평화시대(Pax-Romanna)를 누렸다.⁴¹⁾ 기원전 3세기 당시 이탈리아 반도의 일부 지역만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는 지중해 건너편 아프리카 북부의 카르타고(Carthage)와의 세 차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 지중해 중앙과 서부에서 해상통제권을 장악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였다.⁴²⁾ 로마는 악티움 해전(Actium, BC 31) 이후 지중해를 장악하고 그 세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였다. BC 29년 아우구스투스(Augustus)황제로 등극한 옥타비아누스(Octavianus)는 중산층 출신으로서 기존의 대륙중심의 사고를 가진 지도자와는 달리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 그는 그리스 지리학자와 항해사들을 이용하여 아라비아 무역항로를 지배하였으며, 로마함대를 홍해에 파견하여 아덴을 점령하고 인도양으로 가는 동양항로를 지배하였다. 아우구스투스는 제국의 해양을 통제하기 위

40) Clark G. Reynolds(1974), pp.44-46.

41) 로마평화시대(Pax-Romanna)란 아우구스투스 황제(BC27-AD14)에서부터 마르쿠스 아우렐 리우스 황제(AD161-180)까지의 200년 동안을 말한다.

42) 김주식, 『세계사와 해양활동의 관계』 (해군사관학교박물관, 1992), pp.97-127.

하여 상비해군을 창설하였다. AD 14년 옥타비아누스가 죽을 때 그는 해양제국이 된 로마를 유산으로 남겼다. 로마의 황금시대는 이러한 자유로운 무역과 해양중심의 세계주의에 의하여 발달되었다. 이 거대한 해양 네트워크는 로마의 제해권 덕분에 AD 3세기까지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 평화의 바다로 불렀다.⁴³⁾ 즉 로마 해군은 지중해를 그리스 내해의 시대(Thalassocracy)에서 로마의 해양(Mare Nostrum) 시대로 바꾸었으며, 로마 제국의 패권체제를 통합시키고 유지하는 핵심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전 세계 대양과 중요기지에 해군을 전진배치하여 해양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고 해상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 원래 통제권(control)이란 프랑스어의 'controle'에서 유래하였는데 실제 의미는 지배(command)가 아니라 감독(supervision)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⁴⁴⁾ 현대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힘의 지배체제보다는 감시통제체제를 통해서 더 적은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⁴⁵⁾ 미 해군은 평시부터 전 세계를 감시·감독하고 통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자유로운 해상통상과 안정된 해양체제는 세계체제의 근간으로서 어떠한 패권국이라 할지라도 최우선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다. 해군력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해의 자유권, 해상무역거래질서, 해양자원 관리, 해양환경보존, 기후변화 등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실행시키고 감독하며, 마약 밀매 등 해상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세계 해양질서를 유지한다. 해군력은 모든 국가에게 중요한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제공한다. 해상 교통은 육상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하며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16세기에 인도양을 왕래했던 포르투갈 향신료 무역 선박은 그 선박의 1/4과 선원의 절반 이상을 잃어도 여전히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즉 6척 중 1척만 살아남아도 이익이 되었다. 오늘날 TV 1대를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송하는 비용은 10달러가 넘지 않는다. 해상무역은 국가번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평시에는 경쟁의 대상이었고 전시에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해군력은 평화로운 상업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언제나 첫 번째 임무로 삼아 왔다.⁴⁶⁾

고대 그리스는 지중해 해적에 대항하기 위해 함대를 분산 배치하여 운영하

43) Clark G. Reynolds(1974), pp.51-77; 조학제 역, R.G. Grant 저, 『해전 3,000년』 (해군본부, 2012), pp.44-45.

44) 배형수(2011), pp.17-18.

45) 윤덕노 옮김, Mark Leonard 지음, 『유럽의 세계지배』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6), p.50.

46) 배형수(2011), pp.54-57.

였지만 알렉산더 사후에 제해권을 상실해 감에 따라 도처의 해적에게 시달려야 했으며 점차 제국도 쇠약해지고 말았다.⁴⁷⁾ 현대에 들어서도 해적은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고 2008-2013년 간 전 세계에서 해적으로부터 공격당한 사례만도 총 1,869건으로서 연평균 374회에 이른다.⁴⁸⁾ 우리 해군도 2009년부터 아덴만 해적퇴치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초국가적 위협으로부터 세계체제와 질서를 보호하는 것도 해군의 중요임무로 부상되고 있다. 아덴 항에서 2000년 미국 해군 콜(USS Cole)함이 자살보트에 의해 피격을 당했고, 2007년 아라비아해 북부에서 영국호위함 콘월(HMS Cornwall) 승조원 납치사건, 2006년 이스라엘 초계함 하닛(Hanit)함의 헤즈볼라 미사일(C-802) 피격사건, 2010년 한국 천안함 피격사건, 그리고 중동에서 발생한 여객선 납치사건 등 해상테러는 계속되고 있으며, 패권국 해군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되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해양차단작전도 테러집단의 확산에 따라 중요한 임무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면 2003년 PSI가 출범했을 때에는 단지 11개국만 참여했지만 2012년까지 102개국으로 급속히 늘어났다.⁴⁹⁾ 현재 PSI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다국적 연합훈련을 하고 있으며 유엔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더욱 강화되고 있다.

초국가적 해양 재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역시 세계체제를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다. 1896년 6월 일본 산리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해일이 발생하여 22,000명의 사망하는 대참사가 있는 후 쓰나미는 세계적 공통어가 되었다. 이제 해상 재해는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인식되어 있고 각국의 군대는 재난구조 지원을 군의 기본임무로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군력은 세계체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해군력은 국제체제의 질서와 합의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대항해시대의 세계 최강의 해양 강대국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494년 ‘토르데실라스 조약(The Treaty of Tordesillas)’을 체결하고 전 지구의 해양을 양분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하였고 1506년 교황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됨으로써 이것이 세계 최초의 국제 해양법이 되었다.⁵⁰⁾ 양국 해군은

47) 조학제(2012), p.45.

48)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시스템(<http://www.gicoms.go.kr/pirate/>(검색일: 2014.5.29).

49) Park, Young-Gil, "Transnational Maritime Threats and Ways to Promote Interagency Cooperation", KIMS ed., *Changing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Role of ROK Navy* (Seoul: KIMS, 2014), pp.110-111.

이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냄으로써 세계해양에서 약 100년간의 평화를 누리고 도전세력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1600년대에 들어 네덜란드가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면서 동인도제도에 서 포르투갈과 무역마찰을 겪자 네덜란드의 국제법학자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1609년 『자유해론(Mare Liberum)』을 발표하고 모든 국가는 바다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공해개념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국의 법학자 셀던(John Seldon)은 1635년 『폐쇄해론(Mare Clausum)』을 발표하고 연안국의 주변해양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영해개념을 주장하였다. 영국 내륙의 강에서 흘러나와 바다를 이룬 주변해역은 영국 국왕의 지배에 속한다는 것이었다.⁵¹⁾

해양강대국과 해양약소국 간의 이런 시각차이는 오늘날에까지 그대로 전수되어 왔는데 국제사회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왔다. 1930년 국제연맹에서는 그동안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왔던 해양관습과 규칙을 국제법으로 규정하고자 논의한 바 있었고, 유엔에서는 1958년 이후 3차례의 해양법 회의를 통해 제네바 해양법 협약을 도출해 내었으며, 이어 1982년에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체결되었고 1994년에 발효되었다. 특히 오늘날에는 해양이 생물,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부각되면서 세계도처에서 해양영유권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군력은 이와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미 미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마찰을 겪고 있는 도서국가들을 지원하며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다.

넷째, 해군력은 세계체제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도전을 억제하여 체제를 보호해준다. 해군력은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전진배치, 순환배치, 사전(예방)전개, 전방현시, 현존함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분쟁을 예방한다. 때로는 함대의 존재만으로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세계질서를 지배하는 국가는 충분히 강력하고 즉각 투입이 가능한 현존함대를 효과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적대국이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고, 기습(제1격)의 기회를 박탈한다. 또한 체제에 도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이용한 설득, 강압, 억제 등으로 도전의

50) S. K. Wahyono, "Strategic, Assessment of the Indian," Robert H. Bruce ed., *Indian Ocean Navies* (Perth: Curin University of Technology 1990), p.126; 이재형, 『중국의 해양 전략』 (서울: 도서출판 황금알, 2007), pp.30-32.

51) Jonathan Alford ed., "Seapower and Political Influence," *Sea Power and Influence*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regic Studies, 1980), p.5.

지를 제거하거나 약화시킨다. 이러한 방법에는 국기시현(showing flag), 무력 시위(showing forces)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 등 무력사용의 위협과 더 나아가 군사적 개입과 봉쇄 등 제한된 군사력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⁵²⁾ 프로이센의 프레드리히 대왕은 무기가 없는 외교는 악보없는 콘서트라고 하였다.⁵³⁾ 포함외교의 역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405)의 근본원인은 스파르타와 아테네간의 세력다툼이었지만 촉발원인은 아테네의 포함외교의 실패에 있었다.⁵⁴⁾

근세에 들어 영국의 중국에 대한 개방이나 미국의 일본에 대한 개방도 해군의 포함외교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체제적인 면에서 해군력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은 미국의 루즈벨트(T. Roosevelt) 대통령이다. 그는 미 해군으로 하여금 최신에 전함 16척으로 대백색함대(The Great White Fleet)⁵⁵⁾를 구성하여 1907년 12월 16일부터 1909년 2월 21일까지 14개월에 걸친 세계 일주의 군함외교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대규모 해군예방외교였던 것이다. 이 함대는 6대륙 22개 항을 방문하면서 43,000마일의 항정 동안 파나마, 베네주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의 해양을 미국의 통제권역으로 편입시켰고, 당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연이은 승리로 급부상한 일본의 도전을 잠재웠으며⁵⁶⁾, 중국 개방정책(Open Door Policy)에 대한 미국의 입지를 강화시켰고, 영국이 미국에 도전하기보다는 협력의 길을 나아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⁵⁷⁾ 오늘날에도 미국은 세계의 위기를 관리하는 데 해군력을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⁵⁸⁾

52) Edward N. Luttwak, *Strategy and History* (New Brunswick, New Jersey: Transaction Books, 1985), pp.79-98.

53) 원은주 옮김, Leslie H. Gelb 지음, 『권력의 탄생: 21세기 군주론』 (서울: 지식갤러리, 2010), p.24.

54) Thucydides, *The Peloponnesian War*, Translated by John H. Finley Jr. (New York: Modern Library, 1951), pp.15-87.

55) 전함이 대양 항해 시에 철판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흰색 페인트를 칠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56) Ruhl J. Bartlett, *The Record of American Diplomacy* (New York: Alfred A. Knopf, 1964), p.414.

57) 조학제 역, Henry J. Hendrix 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해군외교』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pp.3-10, pp.295-322.

58) 미국은 1946-1975년까지 30년간 국제적 분쟁에 총 263회 군사적 개입을 했는데, 이 중 불확실한 것을 제외한 215회 중 177회가 해군이 개입한 것으로 82%를 차지하였다. B.M. Blechman and S.S. Kaplan, *Force Without War: U. S. Armed Forces as a Political Instrument* (Washington

다섯째, 해군력은 우군동맹을 굳건히 하고 지원함으로써 세계패권체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구는 본질적으로 해양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 이 해양을 연결하는 해군동맹은 안보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주며 문화적 연대를 강화시킨다. 반면에 도전자 동맹간의 대륙간 교류와 군사이동을 제한시킨다. 동맹은 패권국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 결성되기도 하지만, 도전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결성되기도 한다. 미국은 냉전 시 NATO(1949), ANZUS(1951), SEATO(1954), 바그다드조약(1955; 1959년에는 CENTO로 확대됨)과 같은 다자동맹과 한국(1953년), 일본(1954년)과의 쌍무적 동맹으로 전 세계에 걸친 동맹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소련을 봉쇄했다. 또한 동맹간 주기적인 연합훈련은 우방군간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전투수행능력뿐만 아니라 동맹에 대한 신뢰와 공신력을 높여준다. 스미스(Alastair Smith)도 “동맹의 공약에 대한 높은 신뢰성은 적대국의 침공 가능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⁵⁹⁾ 하였다. 이와 같이 해군동맹은 세계패권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도전자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루즈벨트는 미 해군대학에서 ‘워싱턴의 잊혀진 금언’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면서 “건강한 해군력은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가장 확실한 보증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후세의 학자들은 이를 해군외교, 포함외교, 강압외교, 설득외교, 예방외교 등으로 불렀다. 알렉산더(George Alexander)는 국제관계 현대용어집에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의 용어를 소개하면서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전환시키거나 중단시키도록 운용되는 방어적 전략을 강압외교라고 정의하였다.⁶⁰⁾

해군력의 역할은 패권전쟁에서의 승리 못지않게 평시 패권체제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함대의 존재 자체가 통제효과를 발휘하는 까닭이다. 더 나아가 해군력은 패권체제유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군사력으로 지상군 투입 이전에 체제 내 문제를 예방·해결하여 체제유지비용과 위험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최적의 군사력인 것이다.

D.C; Brookings Institution, 1978), p.40.

59) Alastair Smith, “Alliance Formation and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9(1995), pp.405-425; Alastair Smith, “Extended Deterrence and Alliance Formation”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24(1998), pp.315-343.

60) 조학제(2010), pp314-315; Alexander George and William Simons,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San Francisco: Westview Press,1994), pp.7-16.

Ⅲ.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해군력의 역할

1. 개요

김종성은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패권경쟁의 역사를 무역로의 경쟁으로 해석하고 <표 1>에서와 같이 초원길 시대, 비단길 시대, 바닷길 시대로 구분하였다. 인간과 물자와 정보를 실어 나르는 무역로가 세계정치의 역학구도를 변화시켜왔다는 것이다.⁶¹⁾

<표 1> 아시아 패권경쟁 시대별 구분

제1기: 초원길 시대	유목민족 패권	만리장성으로 대륙 분할
제2기: 비단길 시대	2-1 장성 서북과 장성 이남의 투쟁	농경민족의 부상
	2-2 장성 동북과 장성 이남의 투쟁	농경·유목 민족의 대립과 포용
제3기: 바닷길 시대	3-1 대륙과 해양의 소강기	대륙 주변부 간의 교류
	3-2 해양의 절대적 우세기	1. 서양 단독 주도기
		2. 서양·일본 공동 주도기
		3. 일본 단독 주도기
	3-3 해양의 상대적 우세기	일극과 다극 연합의 대립기
2. 일극과 다극의 대립기		
	3. 일극의 단독 주도기	

출처: 김종성 지음, 『동아시아 패권경쟁』 (서울: 도서출판 자리, 2011), p.72.

한편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과 모델스키의 장주기론은 공통적으로 세계 패권체제의 순환주기를 대략 100여 년으로 평가했다. 이 개략적 100년 주기설을 근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체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1) 김종성, 『동아시아 패권경쟁』 (서울: 도서출판 자리, 2011).

〈표 2〉 동아시아 패권경쟁체제의 과거 및 현재와 전망

패권국	청국 중심 (1800-1895)	패권경쟁시대 (1895-1990)			미국 중심 (1990-2090)	차기패권 (2090-)
경쟁국	영·러·청·일	일·러	미·일	미·소	미·중	?
기간	1800-1895	1895-1905	1905-1945	1945-1990	1990-2090	2090-
주요 패권경쟁	아편전쟁 청일전쟁 (1839-1895)	러일전쟁 (1904-1905)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1937-1945)	한국전쟁 냉전 (1947-1985)	경제·해양경쟁 (2008-)	

1단계(1895-1990)는 동아시아지역체제가 중국패권체제에서 미국패권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 기간 동안 청국의 천하질서가 붕괴되었고, 청일전쟁(1894-1895)에서 청국에 승리한 일본이 러시아와 미국과 패권경쟁을 치렀다. 일본을 물리친 미국은 소련과 패권경쟁을 하였고 소련의 붕괴로 미국이 패권적 지위에 올랐다. 2단계(1990-2090)는 동아시아지역체제가 미국체제에서 차기 패권국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차기 패권국을 결정하는 기간이다. 일본이 장기적 경기침체로 쇠퇴하는 가운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패권경쟁과정에서 패권에 도전한 국가는 모두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패권경쟁에서 승리한 국가도 모두 해양국가였다. 일본은 도서 내륙국가에서 도서해양국가로 탈바꿈한 이래 아시아 대륙을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대륙국가 미국도 해양국가로 변모하면서 세계국가(world power)로 부상할 수 있었다. 차기 패권 도전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성공여부도 해양성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 동아시아 패권경쟁은 한마디로 해양화 경쟁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해군력은 동아시아 패권경쟁체제의 구조와 과정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조적인 면에서는 동아시아 패권체제내의 해군력의 분포가 국제질서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으며 상대적 권력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고 결국 해군력이 패권경쟁수단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동아시아 패권경쟁과정에서도 해군력은 국가 내부권력을 증대시키는 원동력으로서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하여 주었으며 패권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었고 패권체제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2. 동아시아 패권경쟁체제 구조에서 해군력의 역할

가. 동아시아 패권경쟁체제 유형과 특징

근대이후 동아시아 패권경쟁체제는 세대별 특징에 따라 제국식민주의시대, 산업화·근대화 시대, 세계화·정보화 시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체제별 특징은 <표 3>과 같다.

<표 3> 동아시아 패권경쟁 유형별 특징

구 분	러·일간 패권경쟁	미·일간 패권경쟁	미·중간 패권경쟁
세계체제 특징	제국 식민주의 (상호 의존성 미약)	근대화·산업화 (일본의 대미 의존성 심화)	세계화·정보화 (상호의존성 심화)
동아시아 지역구조	불균형 다극체제	불균형 양극체제	불균형 양극체제
패권경쟁 구도	대륙세력: (+유럽대륙세력) 도서해양세력 (서구해양세력)	대륙해양세력: (+유럽해양세력) 도서해양세력 (+유럽대륙세력)	대륙해양세력: 대륙해양화세력
경쟁목표	만주, 한반도 (영토지배권)	자원 (태평양통제권)	세계/지역 지도력 (네트워크거버넌싱)
상호의존도	상호 의존도 빈약	일방적 의존 심화	상호의존도 심화
패권전쟁성격	제한전쟁	무제한 전쟁	포괄적 경쟁?

제국식민주의시대에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러·일간 패권경쟁은 역외 강대국과 역내 강대국이 혼재한 불균형 다극체제 하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완충지대이자 충돌지역인 변방지대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다툰 제한된 패권경쟁이었다. 산업화·근대화시대의 동아시아 패권경쟁은 세계산업화의 선발주자 그룹에 속한 미국과 아시아 산업화의 선발주자인 일본간의 해양패권경쟁이자 자원경쟁으로서 미·일간 양극체제하에서 수행된 전면적 패권경쟁이었다.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세계화·정보화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약 100여 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 중 전반기는 소련이라는 변수를 매개로하여 미·중 경쟁국간에 협력과 갈등이라는 이중적 구조 속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소련 붕괴 후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하에서 거대대륙국가간에 해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패권경쟁의 특징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

아시아 지역 패권경쟁은 역내 강대국과 역외 강대국간의 대결이었다. 전반적인 역사의 흐름은 19세기 아시아에 몰려왔던 역외세력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과거 중국중심의 지역체제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도 국가가 해양화되지 않고서는 패권에 도전할 수 없었고, 패권에서 승리한 국가도 해군력이 우세하거나 제해권을 장악한 국가였다. 일본은 도서내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 변모되면서 패권도전에 나설 수 있었으며, 20세기 말 러시아는 대륙가로서 세계최강의 함대와 견줄 수 있는 3개의 대함대를 거느린 해군강대국이었다. 미국도 19세기 대륙개척을 마치고 해양화길로 나선 지 약 100여 년 만에 세계최강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일본의 해양화보다 100년이 지난 뒤였지만 해양화길로 나선 이후에야 패권경쟁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셋째, 패권경쟁은 한 국가의 경쟁이 아니라 세력간의 경쟁이며 이에 따라 동맹의 획득 특히 해양국가를 동맹으로 획득한 것이 패권경쟁의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제0차 세계대전이라 일컬어지는 러일전쟁이나 제2차 세계대전인 태평양전쟁 모두 대서양·유럽 국가들과의 동맹아래에서 수행되었다. 오늘날에도 미·중간에는 동맹과 지지세력을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넷째, 해양세력이 대륙세력보다 강력한 응집력과 실효성을 보여주었다. 러일전쟁에서 영·미·일간 동맹은 전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지만 독·프·러 동맹보다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또한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국은 동맹으로서 양 대양 통합전쟁을 치렀지만 주축국은 양 대양으로 분리된 전쟁을 치렀다. 향후 중국이 어떠한 해양동맹을 획득할 것인지가 심사이다.

다섯째, 다극화 체제에서의 패권경쟁에서는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많고 이것이 패권전쟁을 제한시키는 기재로 작용하지만 양극체제에서는 이를 제한할 기재가 작동되기 어렵다. 그래서 무제한전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미·중간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패권경쟁의 획득목표가 확대되고 경쟁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 식민제국시대의 영토적 경쟁이 산업화시대에는 자원경쟁으로 변모되었고 오늘날의 세계화·정보화대에는 자국중심의 세계질서 특히 경제적 체제에 대한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곱째, 패권경쟁체제가 세계화체제로 확대되면서 경쟁국간 상호의존도도 변화되고 있다. 오늘날 미·중간에는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깊은 상호의존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 패권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 동아시아 패권경쟁의 목표·수단에서 해군력 역할

동아시아 패권경쟁의 목표와 수단 및 권력변동 시기를 종합하면 <표 4>와 같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권목표는 팽창적이었고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러·일간 패권경쟁의 목표는 대륙에서 해양으로 또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이동하는 교통지대인 한반도와 그 배후지역인 만주를 놓고 대륙세력 러시아와 해양세력 일본이 충돌한 사례로서 주로 영토정복이 주된 목표였다. 미·일간 패권목표는 대륙의 영토뿐만 아니라 동남아 및 남서 도서국가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남서 태평양의 통제권이 목표였다. 미·중간 이 패권경쟁은 영토나 자원보다는 자국중심의 세계질서구축을 목표로 세력다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패권경쟁의 대상이 대륙영토 중심에서 해외자원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해군력의 역할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서의 경쟁대상은 세계적 지도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적 개입 능력이 탁월한 해군력은 미래의 패권경쟁에서도 유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패권경쟁의 목표는 권력증대였고 패권경쟁수단도 상대적 권력의 차이였다.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강대국들의 상대적 권력변동은 경쟁국간 관계와 국가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시기별 구분은 모델스키나 길핀이 제시한 4단계 패권전이 과정에 따라 권력 불균형기, 재분배기, 대등화기, 전이기의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표 4> 동아시아 패권경쟁 사례별 목표·수단·권력변동시기

구분	러·일 패권경쟁	미·일 패권경쟁	미·중 패권경쟁
패권목표	러, 남방 진출(동북아) 일, 남방 진출(만주대륙)	미, 태평양 통제권 일, 대동아공영권	미국 중심 세계질서 중국 중심 세계질서
경쟁대상	만주, 한반도 (영토지배권)	자원 (태평양통제권)	세계/지역 지도력 (거버넌싱)
패권수단	군사력(+산업력)	산업력(+군사력)	경성+연성 권력
경쟁기간	단기(약 50년)	중기(약 100년)	장기(약 150년)
권력변동	급격	완만	더욱 완만
관계설정	러일수호조약 1855	미일 수호조약 1853	중국 건국 1949
불균형기	일, 대만 원정 1875	청일전쟁 1894	중, 개혁개방 1978
재분배기	청일전쟁 1984	제1차세계대전 1914	미, 금융위기 2008
대등화기	영일동맹 1902	중일전쟁 1937	중, 건국 100년 2050
전이기	러일전쟁 1905	태평양전쟁 1945	? 2090

셋째,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경쟁국 간의 상대적 권력과 국가행위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은 경쟁국 간 해군력의 변동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경쟁국 간에 상대적 권력변동이 급격히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권력이 충돌하는 전쟁이나 권력이 통합되는 동맹결성 또는 경쟁국 간의 외교적 관계변화나 국제경제적 위기 등과 같은 중요사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럴 때마다 해군력은 그 동인이나 결과로서 작용하였던 것이다.

넷째, 동아시아 패권경쟁의 수단인 국가권력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군사력 중심의 국력에서 산업력 중심의 국력으로 확대되었고 오늘날에는 경성권력뿐만 아니라 연성권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경쟁수단으로서 해군력의 위치는 국가권력의 핵심으로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향후 패권경쟁에서 군사력의 유용성도 영토정보보다는 세계체제경쟁과 세계경제활동 보호에 기여하는 데 더 가치를 두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래 해군력은 이런 임무에 적합한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앞으로의 패권경쟁에서도 해군력은 더욱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다섯째, 패권목표와 수단이 확대되면서 패권경쟁의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 미·중간에는 경쟁이 시작된 지 곧 100년이 도래하지만 권력전이가 도래하는 시기는 이보다 훨씬 더 늦춰질 것이다. 경쟁국 간 권력변동의 범위도 과거에 비하여 완만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중간에도 단기결전적인 방법으로 패권경쟁이 판가름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비록 경제력에서 미국을 추월한다 해도 해군력이 대등해지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3. 동아시아 패권경쟁 과정에서 해군력의 역할

〈표 5〉 경쟁국 간 권력변동시기별 패권전략과 해군력의 역할

구분		러·일 패권경쟁	미·일 패권경쟁	미·중 패권경쟁
권력 불균형기	패권경쟁 전략	강압 : 순응	강압 : 순응	봉쇄 : 반봉쇄
	해군력 역할	국가대외정책지원 국가내부국력증진	국가대외정책지원 국가내부국력증진	봉쇄·동맹지원 수세적 연안방어
권력 재분배기	패권경쟁 전략	포용 : 편승	포용 : 편승	포용 : 편승
	해군력 역할	전략적 협력 대외진출	전략적 협력 대외진출	전략적 협력 해외진출

구분		러·일 패권경쟁	미·일 패권경쟁	미·중 패권경쟁
권력 대등화기	패권경쟁 전략	억제 : 균형	봉쇄 : 거부	갈등 : 협력
	해군력 역할	해군력 경쟁 패권도전 수단	해군력 경쟁 패권도전 수단	해군력 경쟁 영향권 경쟁
권력 전이기	패권경쟁 전략	격퇴 : 도전	격퇴 : 도전	봉쇄? : 거부?
	해군력 역할	동맹수단 전승요인	동맹수단 전승요인	체제경쟁 승리요인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도 패권경쟁국간의 전략과 해군력의 역할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국간 상대적 권력변동에 따라 크게 변하였다. 권력 불균형기에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해군도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지배국은 해외진출의 수단으로, 도전국은 국가내부를 정비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권력재배분기에는 양국 간에 포용과 편승전략을 채택하였고 해군력은 양국 간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맺는 중요한 매개체였다. 권력 대등화기에 경쟁국간에는 억제/봉쇄와 균형/거부 등의 전략을 채택하였고 해군력은 권력경쟁의 방편으로 모두 해군군비경쟁에 뛰어들었다. 권력전이기에 경쟁국 간에는 권력이 직접 충돌하는 시기로서 해군력은 세력전이를 도모하거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가. 경쟁국 간 권력 불균형기 해군력의 역할

지배국과 도전국 간의 권력의 차이가 심한 불균형기에 양국간 해군력은 일방적인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각기 내부 국력의 증대수단으로 해군력을 활용하였다. 첫째, 강대국은 해양력을 이용하여 해외무역로와 시장을 개척하였다. 러시아는 19세기 초까지 서구열강 중 제일 먼저 극동에 기지를 구축하고 함대를 건설하였으며 북태평양에 자국의 해양권역을 형성하고 일본에 진출하였다.⁶²⁾ 미국은 19세기 중반 대륙개척을 마치고 해양개척에 나서기 시작하였으며 1840년대 중국과 무역로를 개설한 이래 1900년에 이르기까지 하와이, 괌, 필리핀에 거점을 구축하였다.

62) 러시아가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곳은 발틱해, 흑해, 북태평양 세 곳뿐이었다. 1721년 발틱해의 고틀랜드(Gotland) 1783년엔 흑해의 세바스토폴(Sevastopol) 극동에서는 1740년 캄차카에 페트로파블로프스크(Petropavlosk) 항을 건설하였다, Sergei G. Gorshkov(1979), pp.71-72.

둘째, 강대국은 월등한 해군력을 이용하여 원정작전을 실시하고 약소국가에 대한 포함외교로 일방적인 불평등관계를 구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교적 강압수단으로서 해군력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1853년 미국의 흑색함대가 포함외교를 통해 서구에서 가장 먼저 일본을 개항시켰고 이어 1855년 러시아의 푸티아틴이 동아시아 함대를 이용하여 일본과 불평등관계를 구축했으며 1861년 대마도를 강점하여 부동항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셋째, 강대국은 월등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잠재적 도전세력을 봉쇄할 수 있었다. 미국은 냉전 초기 중국의 아킬레스인 대만과 한국을 잇는 봉쇄선을 구축하고 제해권을 바탕으로 대만위기,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서 중국을 압도했으며, 호주, 태국, 필리핀 등 중국을 포위하는 해양동맹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넷째, 약소국은 강대국의 강압에 순응하면서 해군력 건설을 내부국력을 증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았다. 특히 국가체제의 해양화와 산업화 등 해외팽창의 기반을 닦았다. 해군이 없었던 나라 일본에게 해군력 건설은 국가의 근대화 와 산업화의 초석이 되었고 쇠국주의 나라에서 팽창주의로 나라로 전환시키는 추동력이 되었다. 일본은 이 해군력을 바탕으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미일전쟁과 같은 패권전쟁을 연이어 수행할 수 있었다.

다섯째, 해양화가 되지 못한 국가는 경쟁국과의 권력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켰다. 중국은 대륙세력을 이용하여 해양국가와의 불균형을 극복하려 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국가 해양화를 지연케 함으로써⁶³⁾ 같은 아시아의 일본보다 100년이나 국가성장이 늦춰졌다.

나. 경쟁국 간 권력재분배기 해군력의 역할

동아시아에서 패권경쟁국 간에 권력이 재분배되는 시기에 지배국은 도전국을 포용하였고 도전국은 이에 편승하여 국력을 증진시켰다. 경쟁국 간에 포용과 편승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요인은 강대국들은 우선 다른 강대국과 경쟁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영국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각각 일본을 포용하였다. 냉전기간 미국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포용하였고 중국도 대륙국가인 소련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념이 다른 해양 강대국(미국)과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이

63) 모택동의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등 자력갱생 정책은 그 전통적, 폐쇄적, 대륙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다.

시기에 해군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군력은 경쟁국간에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러시아가 1870년대에서 1890년대까지 중국으로 남진하는 동안 일본은 류큐(1872), 대만(1874), 그리고 한국(1875)에 진출하였다. 대륙국가와 해양국가간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진 것이다. 1900년대 영국과 미국은 일본과 해양연합체제를 구축하고 러시아의 남진에 공동 대응하였다. 중국도 해양강대국인 미국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소련에 대항하였다. 이러한 협력관계에서 지상군끼리 공동으로 작전한 사례는 없다. 모두 직간접적으로 협력국가의 해군력을 이용하거나 해군력을 매개로 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이었다.

둘째, 해양국가들은 해양에서 경쟁보다 협력을 도모하였다. 해양국가가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처한 것은 대륙 강대국의 해양진출이었다. 러시아와 중국의 해양진출이 더딘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미국도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하지 않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지만 해양진출을 추진한 이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해군력은 해양국가 간의 해양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핵심세력이 되었다. 러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보여준 미국·영국·일본 간의 해양협력체제나 냉전체제 시 미국을 축으로 한 해양동맹체제는 해군에 의해서 형성되고 해군에 의해서 유지되었다.

넷째, 도전국은 해양지배국에 편승하여 해양진출을 도모하고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었다. 일본은 청일, 러일전쟁을 거쳐 제1차 세계대전 후 마리아나, 마셜, 캐롤라인 제도 등 남서태평양으로 진출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제공해 준 해상교통로에 무임승차하여 그 활동영역을 세계로 확장할 수 있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였고 이 교통로를 이용하여 현재 세계 무역량 1위의 국가로 부상하였다.⁶⁴⁾

다. 패권경쟁국 간 권력 대등화기 해군력의 역할

경쟁국 간 권력대등화기에 패권경쟁전략은 억제와 균형 또는 봉쇄와 반봉

64) 한국소비자협회, blog.naver.com/koreakca7/220825003049/(검색일: 2016.11.5); 2015년 세계 10대 무역국(WTO)은, 중국이 총 무역규모 3조 9,570억 달러로 1위에 올랐고, 이어, 미국 3조 8,130억 달러, 독일 2조 3,790억 달러, 일본 1조 2,730억 달러, 영국 1조 860억 달러, 프랑스 1조 790억 달러, 네덜란드 1조 730억 달러, 홍콩 1조 700억 달러, 한국 9,630억 달러, 이탈리아 8,690억 달러 순으로 조사됐다.

쇄전략의 핵심수단이 되었고 해군 군비경쟁도 치열해졌다. 이 시기에 해군력이 수행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군력은 지배국의 억제전략과 도전국의 균형전략을 수행하는 중요 수단이 되었다. 일본이 청일전쟁(1894-95)의 승리로 지역강대국으로 부상하자 러시아는 삼국간섭과 러청동맹(1896)을 통해 일본의 대륙진출을 차단하였다. 이어 러시아는 극동함대를 증강시켜 일본을 억제하고 만주의 여순항과 대련항과 한반도의 거제도과 마산포를 장악하여 일본의 대륙진출을 봉쇄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미국, 영국과의 해양동맹체제를 구축하고 해군력을 증강하고 러시아와 균형을 이루려고 하였다. 태평양전쟁에서도 연합국과 대일 해양동맹을 결성하였다.

둘째, 해군력 통제가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22년 워싱턴 해군조약체제는 단순한 해군군비경쟁의 제한뿐만 아니라, 세계 강대국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였으며 해군력이 그 기준이 되었다. 이 체제를 통하여 패권국 미국은 태평양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1936년 일본이 이 해군조약체제를 탈퇴하자 세계도 불안해졌다. 이 세계적 조약체제가 성립된 것은 해군력 균형이 무너지는 데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고 조약체제가 해체된 것은 해군력의 균형을 깨뜨리고자 함이었다.

셋째, 권력대등화기에서 해군력은 패권경쟁의 핵심수단이었다. 19세기 말 청일전쟁 후 러·일간 해군군비경쟁, 20세기 중반 태평양전쟁 직전 미·일간 해군군비경쟁 그리고 21세기 들어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미·중간 해군력경쟁은 동아시아 패권경쟁이 지상력이 아니라 해군경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 경쟁국 간 권력전이기 해군력의 역할

권력전이기에 들어서면 패권경쟁국들은 자국의 국력 증진뿐만 아니라 동맹과 연합을 통해 국력을 극대화하려는 활동이 활발해진다. 도전국은 보다 상황이 악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전쟁을 선택하였고, 전투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선제기습공격도 마다하지 않았다. 권력이 충돌한 전이기에 해군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군력은 동맹결성의 중요 수단인 동시에 권력의 전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영일동맹은 일본과 러시아와의 균형을 깨뜨리는 데 핵심

적 역할을 하였다. 미일 패권경쟁에서 일본은 유럽의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해군력이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함에 따라 태평양에서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해군력 전이가 이루어졌다. 즉, 러·일 간 패권경쟁이나 미·일 간 패권경쟁에서 동맹관계는 지상력보다 해군력을 지원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다.

둘째, 해군력 우세가 패권전쟁을 결심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일본은 러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에서 다른 능력은 부족했음에도 해군력에서만 우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것이 전쟁결심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러시아 해군은 발틱함대, 흑해함대, 극동함대로 분산되어 있었고, 극동함대도 여순과 블라디보스토크와 분리되어 있었다. 지상군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극동에서는 일본이 우세하였고 영일동맹까지 합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었다. 미·일 간 태평양 전쟁에서는 지상력은 깊이 있게 고려되지도 않았다. 미국이 대서양을 우선으로 해군력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태평양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연합국 전전력을 합친 것보다 훨씬 우세했다.

셋째, 패권전쟁에서 해군력은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는 수단이 되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 연합함대는 해양통제권을 장악하여 요동반도, 산둥반도, 만주 등 다방면에서 지상에 대한 전투력을 투사하였고 모든 군수물자를 해상을 통하여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었다. 더구나 쓰시마해전의 승리로 러시아를 재기 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다. 러시아는 지상전투력은 남아 있었지만 제해권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어 굴복하고 말았다. 미·일 해양국가 간의 태평양전쟁은 해전에서 시작하여 해전으로 종결된 전쟁이었다. 함대결전, 해상봉쇄전, 전략적 공략을 위한 상륙전 등에서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전투를 통하여 미국은 제해권을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넷째, 패권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한 것은 해군의 기술과 전술에서의 혁신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은 시모세 화약과 “T”자 기동을 개발하여 질적인 우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은 어뢰, 레이더, 소나 등의 기술뿐만 아니라 항모전, 잠수함전, 봉쇄 및 해상교통로 파괴전 등 전략적, 전술적 개념에서 전함 위주의 함대결전에 매달린 일본을 압도할 수 있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 간에도 기술과 전술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섯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간의 패권경쟁도 해군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그 결과도 해군력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도 모두 해양국가가 승리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해군력 분포는 지역체제의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패권경쟁과정이 해군력경쟁과정이기도 하였다. 동아시아 패권경쟁 과정에서 해군력은 국가내부의 권력을 증진시켜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패권에 도전하는 조건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동맹을 획득하고 세력전이를 달성하며 패권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는 핵심수단이 되어 왔다. 해군력은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필수조건이자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한반도에 주는 교훈과 함의

1. 동아시아 패권경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패권경쟁국들은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략적 요역을 판단하고 대처한다. 그들이 경쟁하고 있는 주요 지역은 ① 교통의 요충지, ② 자원(에너지)이 풍부한 지역, ③ 자신의 안보를 위한 완충지역, ④ 기술과 자본과 권력이 몰리는 도회지 지역 등이다.⁶⁵⁾ 한반도는 맥킨더(H. Mackinder)의 심장부이론(Heart Land Theory)에서는 외곽 초생달지역(outer crescent)이지만 스파이크맨(N. J. Spykman)의 주변부이론(Rimland Theory)에서는 림랜드에 해당된다.⁶⁶⁾ 마한(Alfred T. Mahan)은 대륙세력인 러시아와 해양세력인 영국간의 결정적 갈등지역을 위도 30~40도 사이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보았다.⁶⁷⁾ 한반도는 마한이 주목한 바로 그 갈등지역으로서 일·러가 충돌했고 미·소가 충돌하였으며 미·중이 충돌한 지역이었다. 이처럼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양대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자 완충지대이며, 강대국 간 쟁탈의 대상이 되는 교통지대로서 동아시아 패권경쟁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65) 이대희, 최연구 옮김, 필립 모로 드파르쥐 지음, 『지정학 입문: 공간과 권력의 정치학』 (서울: 새물결, 1997), p.46; 김종두, 한반도 해양지정학』 (서울: 문영사, 2000), p.96, p.104.

66) 김종두(2000), pp.75-76, p.79.

67) Saul Bernard Cohen(2009), p.19; 김연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전에 대한 지정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원(2013), pp.18-19.

첫째,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연결하는 교통지대로서 상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일찍이 몽고가 일본을 정복하고자 한반도를 전진기지로 삼았고 일본이 명국을 치기 위해 한반도를 통로로 삼고자 했다. 일본은 한반도를 대륙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전방병참기지로써 활용했다. 1984년 청일전쟁에 이어 1905년 러일전쟁에서도 일본은 한반도를 대륙으로 향한 통로로 활용하기도 했으며, 한반도를 스테이징 지역(staging area)으로 군사력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만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러시아도 한반도를 스테이징 지역으로 삼아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반도를 점령하거나 적어도 이곳에 부동항을 확보하려고 했다. 러시아 해군상 티르토프(Pavel Petrovich Tyrtov)는 1890년대 외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제도와 마산포의 확보를 추진했다.⁶⁸⁾

둘째,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 충돌지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명과 왜가 충돌한 지역이 한반도였으며, 러시아와 영국이 전 세계에 걸쳐 패권경쟁을 할 때에도 한반도의 대한해협이 소리없는 충돌지역이었다. 1850년대 러시아 극동함대 푸티야틴 제독은 송전만, 영일만, 거문도 등을 조사하고 부동항으로 이용하고자 했고, 같은 시기 영국은 홋카이도(하코다테)에 해군기지를 확보하여 러시아를 위협하자 1861년 러시아는 대한해협에 있는 대마도 강점에 나섰다. 1885년 러시아가 한국에서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러 밀약을 체결하였다는 소문이 돌아 영국은 1885-1887년간 거문도를 점령하고 러시아와 대치하였다. 또한 러일전쟁의 직접적 원인은 한반도를 두고 러·일간 원산과 대동강을 잇는 39도선이냐, 한만국경선이냐의 분할점령 문제를 놓고 벌인 전쟁이었다. 그리고 미·소간에는 한반도의 38선을 놓고 대치하였고 미·중간에는 이 38선을 놓고 전쟁을 벌였다. 셋째,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1876년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한 이후 1894년 청일전쟁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그리고 1884년 러시아가 한반도에 진출한 이후 1904년 러일전쟁 발생 이전까지, 강대국들은 한반도에서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여러 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삼았고 구한말 고종은 조선의 중립국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넷째, 한반도는 강대국 간 세력균형점이자 자국의 방어를 위한 최전방 전초

68) 김용욱, “청일전쟁(1894-1895) · 러일전쟁(1904-1905)과 조선 해양에 대한 제해권,” 『법학연구』, 제49권 제1호 (부산대학교, 2008), pp.288-289; 최문형,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서울: 지식산업사, 2001), p.68.

기지가 되어 왔다. 1904년 일본은 한만 국경선을 양보할 수 없는 최전방 방어선으로 인식하였다. 1903년 러시아가 압록강 산림채벌을 빌미로 군사력을 한반도로 남하시키자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결심하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시 중국은 미국에게 38도선을 중국의 최전방 방어선으로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그 해 10월 미국이 38도선을 넘어오자 중국은 본격적으로 인민의용군을 한반도에 투입시켰다.⁶⁹⁾ 그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중간에는 한반도가 양국의 세력균형점이자 최전방이 되어 왔다.

다섯째, 해양국가와 해양국가 간의 패권경쟁에서 한반도는 해양국가와 대륙국가를 연결하는 병참로 역할을 하였다. 미·일 패권경쟁에서 한반도는 직접적인 충돌지점에서는 비껴나 있었지만 중립지대가 아니었다. 1941년 태평양전쟁에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상대방에게 양면전쟁을 강요하였다. 미국은 일본이 중국대륙에 묶여 태평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일본은 미국이 대서양에 묶여 있기를 원했다. 미국은 중국을 일본의 자원을 흡수하는 지역으로 보았고, 일본은 중국을 미국과 전쟁할 자원을 공급하는 지역으로 보았다. 한반도는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병참교통로 역할을 하였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반면 미국은 지리적 불리성을 이유로 한반도를 쉽게 포기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사고는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지속되었으며 중국의 오판을 빚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반도는 이와 같은 이유로 러·일 패권경쟁의 결과로 승전국인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미·일 패권경쟁의 결과로 분단국이 되었으며,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한국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향후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69) Alexander L. George,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Boulder: Westview Press, 1991).

〈그림 1〉 미국과 중국간 해양경쟁 현황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0603163203885>(검색일: 2016. 11. 15).

첫째, 미국과 중국은 미·중간 패권경쟁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을 자신들의 지지세력으로 편입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중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이나의 가입문제에 시달린 바 있고, 군사적으로도 2015년 봄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등 한반도 안보문제에 적극 개입하려 한 바 있으며,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발생 한 미·중간 갈등에 대해 한국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남중국해에서 한반도로 상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⁷⁰⁾

둘째, 패권경쟁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양 강대국은 대리전이나 타협의 대상으로 남북한은 물론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대륙 주변국가들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도발행동을 저지시키거나 관심을 다른 데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모험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은 대만에 항공모함을 파견하였고, 중국은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미국이 적대적 행동을 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더구나 남북 분단상황은 강대국들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카드이

70) 김영림, “동북아를 뒤흔드는 사드(THAAD)의 정치학,” 『신동아』 제667권(2015년 4월호), pp. 296-305.

며 한·중간에는 서해 및 이어도 등 해양갈등이 잠재해 있다.

셋째, 한반도 서해에서 이어도에 이르는 해역은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요충지가 밀집되어 있는 핵심해역이자 양국 수도의 관문이며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서로 교차하는 해역이다. 만일 이 해역에서 미·중간 긴장이 발생한다면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사정권 안에 있다.

넷째, 미·중간 해양 패권경쟁 해역은 우리의 사활이 걸린 해상교통로가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미·중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 해상교통로의 안전이 위태롭게 된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인도양의 해상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다섯째, 미·중 패권경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 주변해역을 둘러싸고 있다. 동해와 대한해협은 이들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인데 이들이 미·중 패권경쟁에 가세하게 된다면 한반도 해양안보는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여섯째, 미·중 양 강대국이 협력을 통한 세계관리나 평화적 패권이양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는 양 강대국의 처분에 맡겨지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 1500년대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1494년 ‘토르데실라스’ 조약을 맺고 지구를 양분하여 관리하였다. 1900년대 초 영국과 미국은 세계해양을 관리하는데 서로 협력했었고 190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소련은 세계를 양분하여 관리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이 미·중이 세계를 공동관리하게 된다면 한국의 의사를 배제한 채 강대국 이익중심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다. 1945년 한국분단은 강대국들간 타협의 산물이었다.

2. 한국의 대비방향

한반도는 여전히 미·중간에 세력의 충돌지점이자 완충점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중국의 핵심부를 보호하는 순망치한의 관계로 인식해 왔다. 한국전쟁 후 미국도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순망치한의 관계로 보고 있다. 즉, 한반도의 역할은 미·중간 대칭성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미·중간의 대치점을 한반도에서 형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깊은 의존관계를 비대칭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국가경제력은 해양으로부터 획득하고 있는 반면, 군사

력은 지상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국가관계와 자원의 비대칭적·불균형적 분배는 향후 미·중간의 패권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의 폭도 제한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략적 발상을 새롭게 하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해군전력을 지금부터 건설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대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내 해군력의 분포가 일극 또는 양극으로 집중화되지 않도록 동아시아 역내에서 한국해군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단·중기적으로는 강대국이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 해군력을 보유해야 한다. 미·중간 패권경쟁은 해군력경쟁에서 비롯되는바 이러한 해양패권경쟁에서 해군이 없으면 강대국들의 휘둘림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미·중간에 경제문제이든 안보문제이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한국의 해군력이 그들에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 해군력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해군력이 미·중에게 의미있는 전력이 되려면 은밀성, 침투성, 파괴성이 뛰어난 원격, 또는 장거리 감시 및 타격무기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미·중간 틈새전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의 전략적 지위를 높일 수 있고 선택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변국들의 해양패권과 위협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전략적 방어 및 억제적 보복전력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주변국에 비해 비용 대 투자면에서 효과가 높은 비대칭적·전략적 무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초고속 무인체계 등과 같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초공동어뢰 등 수중 공격무기, 장거리 대지 유도탄, 초에너지 무기 등 핵 위력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 패권경쟁 과정에서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요구 받을 때 융통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군력을 확보해야 한다. 해양약소국들이 해양강대국에 취했던 순응, 편승, 해징과 같은 소극적 전략으로는 국가안보와 이익을 담보할 수 없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어도 효과면에서는 질적 균형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대국이 가진 동일한 동종의 무기체계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 효과에서의 균형을 달성할 무기체계이면 충분하다.

넷째, 지구공공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해양영유권·해외자

원·해외시장 등 우리의 국가이익과 관련된 전략적 목표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해군력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이해당사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위력과 방호능력을 갖추고 원양에서 장기간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기동전투함대가 필요하다. 특히 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제주도에 이르는 남방해상교통로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해상교통로이자 우리의 생명선인 반면에 미·중간 해양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심각한 위협을 직접 받게 될 것이다. 이들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국가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정치적으로도 우리는 어느 일방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다섯째, 미·중 패권경쟁과정에서 북한의 모험을 억제하고, 만약 도발시 북한위협을 최단시간 내에 제거할 수 있는 해군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반도 위기 발생 시마다 미국 해군력이 주요 위기관리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중국은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다. 한반도 위기를 빌미로 미·중간에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반대로 미·중간 패권경쟁과정에서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요구받을 경우 북한변수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중간 패권경쟁과정에서 북한의 모험을 억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에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결정적 전력으로서 해군을 육성해야 한다. 현재의 해군력이 단지 지상군을 지원하는 군사력 구조 및 배비 운용개념으로 제약되어서는 안 되며, 북한 장거리미사일에 대비한 방어체계(KAMD)와 타격체계(Kill Chain) 등에서도 기동성과 침투성과 생존성이 높은 이지스체계 등 해군전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계해양체제와 질서의 안전관리에 일정부분 공헌할 수 있는 해군력, 특히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력을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군의 임무 및 작전영역을 획기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기존의 북한의 해상도발억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해양분쟁관리, 국제해협 통제 및 해상교통로보호 등 해상질서유지를 위한 국제해양 안보협력, 위험구역 강제 진입·통제 및 국제적 통제해역(금지구역, 제한구역 등) 관리 등 국제해상위기관리, 국제해상재난대비 및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등의 새로운 임무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해에서 다양한 다국적 협력 및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입체적 전력과 수행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곱째, 국가내부의 국력증진의 수단으로서 해군력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21세기 국가부흥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 오늘날 모든 국가들은 해양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계화 시대에 적응할 수 없으며 국가성장의 동력을 얻을 수도 없다. 향후 우리나라는 국가지도의 원리를 해양화로 삼고 해군력 건설을 통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내야 한다. 국가 해양화는 국민의식을 개방적이며 도전적이며 진취적인 성향으로 유도하고 세계로 진출하며 세계와 교류하는 초석을 제공한다. 해군력 건설에 필요한 항모, 잠수함, 항공기, 초고속 수상함, 입체적 무인체계, 장거리 정밀 타격체계, 통합전투체계 등 제분야는 첨단국방과학과 미지의 해양산업을 접목시켜주며, 스틸스기술, 첨단소재기술, 무인 및 로봇체계, 초고속해양수송체계, 심해저 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 신 IT기술 등 새로운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해군 스스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미래의 전략적 상황과 안보위협과 전장변화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군기술과 전술에서의 혁신뿐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첨단기술로 무장된 똑똑한 해군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해군인력은 조선시대 수군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규모로는 해군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임무소요에 부합된 인력을 확충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과학기술의 발달속도의 맞게 군사교육체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아홉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래 안보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국군 군구조와 국방태세를 혁신시켜야 된다. 한국군은 지금까지 육군은 한국군 주도로, 해군은 미국해군의 지원 아래 전쟁을 수행한다는 개념에 따라 배비되고 건설됨으로써 3군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를 퇴색시켜 왔으며, 한국군에서 합동군이라 함은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군중심의 통합성을 의미하고 있을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 현재의 지상군중심의 군구조, 지상군중심의 국방정책 결정구조, 지상군중심의 전쟁수행개념으로는 미·중간 해양패권경쟁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 따라서 지상에 고착된 대북중심의 단기적 시각에서 해양으로 개방된 지역적 중심의 장기적 시각에서 국가미래를 위한 안보전략을 재설정하고 이에 맞는 기술군 중심의 3군 균형체제를 조속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이후 동아시아 패권경쟁은 세계체제와 동아시아의 지역체제간의 침입과 투쟁과정으로서 이 양 체제 사이의 해양이 패권경쟁의 목표이자 수단이 되어 왔다. 현재의 미·중간의 패권경쟁도 세계적

차원에서의 체제적 경쟁과 지역적 차원에서 해양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미·중간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때마다 해군력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요컨대 해군력은 강대국의 패권경쟁이나 패권유지의 필수조건인바,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지상군에 종속되지 않은 균형적인 해군력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연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전에 대한 지정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원 (2013).
- 김영립, “동북아를 뒤흔드는 샤프드(THAAD)의 정치학,” 『신동아』 제667권(2015년 4월호).
- 김용욱, “칭일전쟁(1894-1895) · 로일전쟁(1904-1905)과 조선 해양에 대한 제해권,” 『법학연구』, 제49권 제1호 (부산대학교, 2008).
- 김종두, 한반도 해양지정학』 (서울: 문영사, 2000).
- 김중성, 『동아시아 패권경쟁』 (서울: 도서출판 자리, 2011).
- 김주식, 『세계사와 해양활동의 관계』 (진해: 해군사관학교박물관, 1992).
- 김주식 옮김, Alfred Thayer Mahan 지음,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 책세상, 1997).
- 박건영 외 편역, 『국제관계론 강의 I(International Relations I)』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8).
- 배형수 역, Geoffrey Till 저, 『21세기 해양력』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 양정승,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해군력의 정치적 사용에 대한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2009).
- 윤덕노 옮김, Mark Leonard 지음, 『유럽의 세계지배』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06).
- 원은주 옮김, Leslie H. Gelb 지음, 『권력의 탄생: 21세기 군주론』 (서울: 지식갤러리, 2010).
- 이대희, 최연구 옮김, 필립 모로 드파르쥐 지음, 『지정학 입문: 공간과 권력의 정치학』 (서울: 새물결, 1997).
- 이윤희 · 권복인 공역, Von Mantain 지음, 『해양전략』 (서울: 연경문화사, 1979).
- 이재형, 『중국의 해양전략』 (서울: 도서출판 황금알, 2007).
- 이정수, 『제2차 세계대전 해전사』 (서울: 남영문화사, 1981).
- 이주하 옮김, 무라타 료헤이 지음, 『바다가 일본의 미래다』 (서울: 도서출판 청어, 1999).
- 전웅 편역, 『지정학과 해양세력이론』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 조학제 역, Henry J. Hendrix 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해군외교』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 조학제 역, R.G. Grant 저, 『해전 3,000년』 (해군본부, 2012).
- 차도희, 『동아시아 미 · 중 해양패권쟁탈전』 (성남: 북코리아, 2012); 이재형, 『중국과 미국의 해양경쟁』 (서울: 황금알, 2014).
- 천병희 옮김, Herodotos 지음, 『역사』 (고양: 도서출판 숲, 2009).

- 최문형,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서울: 지식산업사, 2001).
- 황기형·황진희·홍장원·엄선희·박광서, 『해양기반 신국부 창출 전략(I)』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 Alford, Jonathan ed., “Seapower and Political Influence,” *Sea Power and Influence*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80).
- Bartlett, Ruhl J., *The Record of American Diplomacy* (New York: Alfred A. Knopf, 1964).
- Blechman, B.M. and Kaplan, S.S., *Force Without War: U. S. Armed Forces as a Political Instrumen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78).
- Brodie, Bernard, *A Guide to naval Strateg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4).
- Bull, Hedley, “Sea Power and Political Influence”, Jonadhan Alford ed., *Seapower and Influence* (Hampshire, England: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80).
- Cohen, Saul Bernard, *Geopolitics: The Geography of International Relations*, (Maryland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9).
- Corbett, Sir Julian,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London: Longmans, Green 2nded, 1911).
- George, Alexander L.,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Boulder: Westview Press, 1991).
- George Alexander, and Simons, William,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1994).
- Gilpin, Robert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75).
- Gilpin, Robert, “The Nature of Political Economy.” Art, Robert J. & Jervis, Robert. *International Politics* 8th ed. (New York: Pearson & Longman, 2007).
- Gorshkov, Sergei G., *The Sea power of State* (Oxford: Pergamon Press, 1979).
- Gretton, Sir Peter, *Maritime Strategy: A Study of Defense Problems* (New York: Praeger, 1965).
-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Luttwak, Edward N., *Strategy and History* (New Brunswick, New Jersey: Transaction Books, 1985).
- Mahan. Alfred T.,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890).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1).
- Modelski, George and Thompson, William R., *Sea Power in Global Politics 1494-199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 Park, Young-Gil, "Transnational Maritime Threats and Ways to Promote Interagency Cooperation", KIMS ed., *Changing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Role of ROK Navy* (Seoul: KIMS, 2014).
- Reynolds, Clark G., *Command of Sea: The History and Strategy of Maritime Empires* (Malaar, Florida: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1974).
- Rose, J. Holland, *Man and Sea: Stage Maritime and Human Progress* (Cambridge: W. Heffer and Sons, 1935).
- Smith, Alastair, "Alliance Formation and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9(1995), pp.405-425; Alastair Smith, "Extended Deterrence and Alliance Formation"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24(1998).
- Thucydides, *The Peloponnessian War*, Translated by John H. Finley Jr. (New York: Modern Library, 1951).
- Wahyono, S. K., "Strategic, Assessment of the Indian," Robert H. Bruce ed., *Indian Ocean Navies* (Perth: Curin University of Technology 1990).
- Yoshihara, Toshi and Homes, James R., *Red Star over the Pacific: China's Rise and the Challenge to U.S. Maritime Strategy* (Naval Institute Press, 2010).
- 한국소비자협회, blog.naver.com/koreakca7/220825003049/(검색일: 2016.11.5).
-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시스템(<http://www.gicoms.go.kr/pirate/>)(검색일: 2014.5.29).

Abstract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Role of Naval Power

Kim Kyeong-Sik*

This paper aims to analyze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role of naval power.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four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the role of naval power in the hegemonic competition, the role of naval power in the East Asia, and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modern era, the hegemonic competition in the East Asian region has been the intrusion and struggle process between the world system and the East Asian regional system, and the ocean between these two systems has become the goal and means of supremacy(hegemony). Currently,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consists of systemic competition at the global level and marine competition at the regional level. When South Korea is forced to make strategic choices in the course of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naval power will be the first factor to be considered. The ROK is asymmetrically maintaining a deep dependenc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security and China in relation to the economy. And while the ROK's national economic power is acquired from the ocean, the ROK's military power is imbalanced because it is centered on the ground forces. Thes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symmetric-unbalanced resources distribution will not be able to effectively cope with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future, and will limit Korea's strategic choice. Since naval power and forces are the prerequisites for the hegemonic competition or the maintenance of supremacy we must construct balanced naval forces(naval power)

* Former Commandant of the ROK Naval War College, a retired ROK Navy Rear Admiral(U)

that are not subordinate to the ground forces at the national strategic level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

Key Words : East Asia, Hegemonic Competition, US-China Maritime Hegemony Competition, Control of the Sea, Naval Power, Naval Forces, Balanced Naval Forces Construction

논문접수 : 2017년 4월 29일 | 논문심사 : 2017년 5월 15일 | 게재확정 : 2017년 5월 20일